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2  
| 왕수재취득용녀설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인 '왕수재취득용녀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작품은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왕수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웅 소설이다. 왕건 가계가 용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을 부여해서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주제이지.



아,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군요. 줄거리를 보면 왕수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섬에 남겨지던데요.

맞아.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전혀 없는 기이한 변고로 배가 멈추자, 옷을 던져 부정한 자를 가려내기로 했지. 유독 왕수재의 옷만 물에 떠서 그가 섬에 남게 된단다.



그렇게 섬에서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을 만나 구미호를 처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거군요.

맞단다. 그런데 왕수재가 구미호와 맞서는 장면에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나타나니 유의해야 해.



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수재는 명사수인데 왜 바로 활을 쏘지 않고 머뭇거리는지요?

좋은 질문이야. 그건 바로 구미호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기 때문이야. 왕수재는 '사람이 사람을 싸 죽여야 되겠는가?'라며 윤리적 고민을 하지. 이는 그를 단순한 영웅이 아닌, 인간적 고민을 지닌 입체적 인물로 보이게 한단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갈등하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네요. 혹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까요?

그럼. 이 작품의 근원이 된 '거타지 설화'와의 비교는 필수야. 거타지는 풍랑 때문에 배가 멈추지만 왕수재는 고요함 때문에 멈추고, 낙오자를 정하는 방식도 나뭇조각과 옷으로 서로 다르단다.



적대자의 정체도 다르죠? 거타지 설화에서는 늑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해! 여기서도 구미호가 적대자지. 또한 거타지는 즉시 적을 처치하지만 왕수재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차이점도 꼭 기억해야 해.



네, 인물의 심리 변화와 설화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할게요!

그래. 왕수재의 영웅적 면모와 인간적 고뇌, 그리고 '거타지 설화'와 비교하여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등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2  
| 왕수재취득용녀설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번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중단 말인가?”(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신이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함.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원인과 향후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실화 「거타지 실화」와 비교 감상하는 문제에서 ‘거타지가 풍랑에 의해 행선지로 나아가지 못한 것과 달리, 왕수재는 기이한 고요함에 의해 항해가 멈추는 번고를 겪는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이는 필히 해신(海神)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초자연적 존재인 해신의 의지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었다는 당시의 세계관이 드러남.)

상사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거늘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중단 말인가?”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때 왕수재가 말했다.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고난의 원인을 공동체 내의 부정한 존재에게서 찾는 주술적 사고방식의 반영) 부정한 이를 찾아낸 다음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나?”

수재가 말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윗옷의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 가라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험하신 뜻을 보여 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비현실적인 변별 방법을 통해 일행 중 부정한 자를 가려내려는 왕수재의 제안. 신이한 시험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계시를 확인하려는 전기적 구성 방식)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윗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왕수재가 해신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전기적 장치) 부사 이하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이 수재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했다.

“네 말대로 옷을 던져 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질 않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수재가 대답했다.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 오기

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해당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과 포부를 의미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왕수재의 유교적 충의와 비장미가 나타남.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적 대업과 유교적 충의를 우선시하는 왕수재의 가치관)”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재를 만류한 후 가까운 **섬**(공간적 배경의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 '배는 인물들이 집단적인 위기를 겪는 공간이고, 섬은 그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어 인물이 영웅적 과업을 부여받는 공간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내려 주고 떠난다.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 보오.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비현실적 존재)의 아들이라오. [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천 년이 넘었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노인이 수재를 기다린 이유) ]([ : 용왕의 아들(선)과 구미호(악)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여 주인공에게 '요물 퇴치'라는 영웅적 과업을 부여함.)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재의 귀신같은 활 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 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 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선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자신을 낮추는 말하기 방식)

노인이 말했다.

“**수재가 신궁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조력자인 노인의 발화를 통해 왕수재가 비범한 영웅적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모레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오. 수재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재는 잠에 곱아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묘사의 효과를 분석하는 문제에서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청각적 심상은 구미호의 등장이 지닌 위압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는 달랐다. 수재가 노인에게 물었다.

[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소리는 뭘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라오.**” ([ :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는 구미호가 신선으로 승격되었음을 알리는 장치로 왕수재의 경계심을 완화시킨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는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으로, 노인이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오.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 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소.(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하는 문제에서 ‘<보기>의 화자는 관찰을 통해 위선을 비판하고 있으며, 윗글의 노인 역시 부인의 외양 속에 숨겨진 요물로서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조금 있으니 “물렀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구미호의 매혹적인 외양 묘사. 요물인 구미호가 미인으로 변신하여 주인공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음. 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적대자의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외양에 위축되어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한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왕수재는 구미호의 위엄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양에 현혹되어 내적 갈등을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엄 있는 의장(儀仗)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뻗뻗이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 불고 북 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 수재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세요! 가마 위의 부인을 싸죽여야겠으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쏘다가는 한 번에 백 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한 손으로 막아 낼 테니, 소용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열 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 낼 텐데 어쩔 작정이십니까?”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에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쏘다면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리시다.”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새끼 여우들)**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전기적 요소. 노인의 신이함을 드러냄.) 수재는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여우가 둔갑한 모습)**을 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부인을 활로 쏘라는 노인의 부탁을 지키지 못한 이유)**을 보고는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수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싸 죽여서야 되겠는가?’

(여우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활을 쏘지 못함. 적대자의 외양에 현혹되어 도덕적 윤리감과 실제 사이에서 방황하는 왕수재의 내적 갈등)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완전무결한 영웅상이 아닌, 인간적 고뇌와 약점을 지닌 입체적 인물형의 제시. 작품의 주제 의식과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에서 ‘왕수재가 갈등 끝에 활을 쏘지 못한 것은 건국 주체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결함 비판이 아니라, 완벽한 영웅상에 인간적 고뇌를 더해 입체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2

왕수재취득용녀설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이는 필히 해신(海神)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거늘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때 왕수재가 말했다.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를 찾아낸 다음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나?”

수재가 말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윗옷의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험하신 뜻을 보여 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겠

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윗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 부사 이하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이 수재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했다.

“네 말대로 옷을 던져 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질 않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수재가 대답했다.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 오기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욱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재를 만류한 후 가까운 섬에 내려 주고 떠난다.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 보오.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오.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천 년이 넘었소. 구름을 타

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재의 귀신같은 활 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 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 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선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수재가 신공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 모레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오. 수재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 어찌면 좋겠습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재는 잠에 곱아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는 달랐다. 수재가 노인에게 물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소리는 뭘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러오.”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오.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 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소.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조금 있으니 “물렀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

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 위엄 있는 의장(儀仗)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뻗뻗이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 불고 북 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 수재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세요! 가마 위의 부인을 쏘죽여야겠으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쏘다가는 한 번에 백발의 화살을 쏘다 한들 한 손으로 막아 낼 테니, 소용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열 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 낼 텐데 어쩔 작정이십니까?”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에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쏘면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리시다.”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재에게 거둬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수재는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수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러 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쏘 죽여서야 되겠는가?’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원인과 향후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교차하며 인물이 겪는 심리적 외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인 배경을 현실적인 필치로 묘사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 윗글의 '왕수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체의 안위와 국가적 대업을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 ② 신이한 시험을 통해 자신이 일행 중 부정한 자로 지목되자 이를 운명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노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사양하는 겸손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한다.
- ④ 적대자의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외양에 위축되어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한다.
- ⑤ 적대자의 실체와 겉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고민을 한다.

3. <보기>는 윗글의 근간이 된 설화와의 비교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구분	「거타지 설화」
행선지	당나라로 향함
항해 불능 원인	풍량이 크게 일어 항해가 불가능해짐
낙오자 결정 방식	나뭇조각에 이름을 써서 던진 뒤, 가라앉는 조각의 주인이 남음
조력자의 정체	서쪽 바다의 신(神)
적대자의 정체	용왕의 자손을 괴롭히는 중(늪은 여우의 변신)
주인공의 태도	뛰어난 활 솜씨로 즉시 적대자를 처치함

- ① '거타지'가 풍량에 의해 행선지로 나아가지 못한 것과 달리, '왕수재'는 기이한 고요함에 의해 항해가 멈추는 번고를 겪는다.
- ② '거타지'는 나뭇조각을 바다에 가라앉혀 낙오자가 되지만, '왕수재'는 물에 가라앉는 옷을 통해 섬에 남을 자로 선택된다.
- ③ '거타지'와 '왕수재' 모두 적대자가 보여주는 위엄 있는 의장과 위세에 압도되어 활쏘기를 주저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 ④ '거타지'는 조력자의 정체를 의심하여 도움을 거절하지만, '왕수재'는 노인의 능력을 신뢰하여 즉각 화살을 날려 요물을 사살한다.
- ⑤ '거타지'는 바다의 신이 조력자로 등장하지만, '왕수재'는 바다의 신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이 조력자로 등장한다.

4. 윗글의 소재 및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 상태는 항해를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신이한 사건을 유도한다.
- ②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월적 존재의 계시에 의탁하려는 주술적 방식이다.
- ③ ‘천 년이 넘었소’와 ‘삼천 년 묵은 구미호’는 인물들이 지닌 비현실적이고 신이한 속성을 부각하여 전기적 성격을 강화한다.
- ④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는 구미호가 신선으로 승격되었음을 알리는 장치로 왕수재의 경계심을 완화시킨다.
- ⑤ ‘한 손으로 막아 낼 테니’라는 노인의 말은 적대자인 구미호가 지닌 강력한 힘과 변화무쌍한 능력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한다. 왕수재는 실수로 이 약속을 어겨 아내의 본모습을 보게 되고, 신의가 깨졌음을 한탄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떠나 용궁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기2>

「왕수재취득용녀설」은 주인공 왕수재를 통해 영웅적 기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적대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인간적 고뇌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서사적 긴장감을 제공하며, 완벽한 신격화보다는 입체적인 인물상을 통해 소설적 재미를 도모하려는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고난도 5. <보기1>과 <보기2>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전체 줄거리] 고려 태조 왕건의 부친인 왕수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었으나 이웃의 보살핌 속에 영웅적 자질과 뛰어난 활 솜씨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한다. 성인이 된 그는 중국으로 향하는 사절단에 합류하지만, 항해 도중 배가 멈추는 기이한 변고가 발생한다. 점복적인 시험을 통해 홀로 섬에 남겨진 왕수재는 그곳에서 서해 용왕의 태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승천을 방해하는 해로운 여우를 처치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는다.

왕수재는 여우의 현혹적인 아름다움에 잠시 번민하기도 했으나, 결국 신묘한 궁술로 요물을 사살하는 데 성공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용왕의 딸인 용녀를 아내로 맞이한 그는 송악산 자락에 정착하여 큰 부를 쌓게 되고, 장차 나라의 주인이 될 아들 왕건을 얻는다. 그러나 아내는 건강 회복을 위해 용으로 변신하는 동안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금기를 제

- ① 왕수재가 신궁으로 불리며 활 솜씨를 발휘하는 설정은 비범한 영웅적 자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② 왕수재가 서해 용왕의 아들을 돕고 용녀와 인연을 맺는 과정은 고려 왕실의 혈통이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정당화한다.
- ③ 구미호가 미인으로 변신하여 왕수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부여된 영웅적 과업을 방해하는 유혹의 기제로 작용한다.
- ④ 왕수재가 적을 쓰지 못하고 손을 푸는 행위는 영웅의 무결점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입체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⑤ 왕수재가 갈등 끝에 활을 쓰지 못한 것은 건국 주체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난도 6. <보기>의 화자와 윗글의 ‘왕수재’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쬐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 김중서

- ① 윗글의 왕수재와 <보기>의 화자 모두 개인의 안락을 버리고 국가에 헌신하려는 유교적 충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윗글의 왕수재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기개를 보여준다.
- ③ 윗글의 왕수재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 ④ 윗글의 왕수재는 적대자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직감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승리를 확신하며 적을 위협하고 있다.
- ⑤ 윗글의 왕수재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7. 다음은 ‘상사’, ‘왕수재’, ‘노인’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고뇌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왕수재는 배가 멈춘 원인을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주술적 사고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왕수재는 자신이 바다에 남게 된 상황을 신이 초래한 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④ 노인은 왕수재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 없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한다.
- ⑤ 노인은 ‘겸손이 지나치시군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왕수재의 거절을 수용하고, 왕수재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로 전환하여 왕수재를 자극하고 있다.

**8. 윗글의 공간적 배경인 ‘배’와 ‘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며, ‘섬’은 그 가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자아를 성찰하는 종교적 공간이다.
- ② ‘배’는 인물들이 집단적인 위기를 겪는 공간이고, ‘섬’은 그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어 인물이 영웅적 과업을 부여받는 공간이다.
- ③ ‘배’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는 공간인 반면, ‘섬’은 초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만 사건이 해결되는 공간이다.
- ④ ‘배’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만, ‘섬’에서는 인물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게 된다.
- ⑤ ‘배’는 상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공간이며, ‘섬’은 왕수재가 노인을 압도하는 비범한 권위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이는 필히 해신(海神)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는 그 말을 옹기여겼다. 이에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거늘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때 왕수재가 말했다.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

니다. 부정한 이를 찾아낸 다음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나?”

수재가 말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옷의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험하신 뜻을 보여 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 부사 이하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이 수재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했다.

“네 말대로 옷을 던져 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수재가 대답했다.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 오기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욱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재를 만류한 후 가까운 섬에 내려 주고 떠

난다.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 보오.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오.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천 년이 넘었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재의 귀신같은 활 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 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 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선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수재가 신궁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 모레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오. 수재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재는 잠에 굶아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는 달랐다. 수재가 노인에게 물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소리는 뭘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러오.”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요. 귀신이 되었다 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 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소.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조금 있으니 “물렀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 위엄 있는 의장(儀仗)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뻗뻗이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 불고 북 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 수재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세요! 가마 위의 부인을 쏘죽여야겠으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쏘다가는 한 번에 백발의 화살을 쏘다 한들 한 손으로 막아 낼 테니, 소용없는 일이요.”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열 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 낼 텐데 어쩔 작정이십니까?”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에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쏘면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리시다.”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수재는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수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 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쏘 죽여서야 되겠는가?’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

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9. <보기>는 「작제건 설화」의 내용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제건이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는데 갑자기 바다 위에 안개가 자욱하여 열흘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사공이 점을 쳐 가로되 “고려 사람 한 명을 남겨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작제건이 활을 들고 섬에 내리자 배는 곧바로 떠났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울며 말하기를 “나는 서해 용왕인데, 매일 정오에 하늘에서 늙은 중이 내려와 다라니 주문을 외면 우리 권속들의 뇌가 다 녹아 버립니다. 부디 활로 그 중을 쏘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주인공이 당나라나 남경 등 중국을 향해 항해하던 중에 신이한 사건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 ② 윗글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상황을, <보기>는 안개가 자욱한 상황을 설정하여 항해가 불가능해진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배가 멈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행 중 특정 인물을 섬에 남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 ④ 윗글의 적대자는 용왕 아들의 집을 뺏으려는 ‘구미호’인 반면, <보기>의 적대자는 용왕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늙은 중’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⑤ 윗글의 주인공은 적대자의 정체를 의심하여 노인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보기>의 주인공은 노인의 정체를 의심하며 활을 쏘기를 거부한다.

10. 윗글에 나타난 묘사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청각적 심상은 구미호의 등장이 지닌 위압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 ②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라는 비유적 표현은 구미호의 본질이 지닌 선량함과 고결함을 독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 ③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뻗뻗이 늘어서' 있는 모습은 구미호가 왕수재에게 화해와 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한 환영 의례를 의미한다.
- ④ '바다 위를 평지 밟듯이' 다니는 노인의 모습은 인물이 처한 극한의 위기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긴' 왕수재의 동작은 인물이 지닌 강력한 파괴 욕구와 적대자에 대한 증오심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고난도 11. <보기>의 화자와 윗글의 '왕수재'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감상은?

<보기>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난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오마는  
 지는 앞 부난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서경덕

- ① 윗글의 왕수재가 부인의 아름다움에 현혹된 것은 <보기>의 화자가 '지는 앞 부난 바람'을 임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이 외부의 감각적 정보에 의해 내면의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이다.
- ② 윗글의 왕수재는 적대자의 정체를 간파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 환경만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윗글의 왕수재는 도덕적 윤리감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윗글의 왕수재와 <보기>의 화자 모두 자신이 처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과 재회하려는 강한 의지적 태도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윗글의 왕수재는 초월적 존재의 계시를 거부하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지는 앞 부난 바람'이라는 초월적 신호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고전 소설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국 시조의 가계에 용왕과의 인연이라는 신비로운 혈통을 부여함으로써 왕조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해신의 장난, 용왕 아들의 등장, 바다 위를 걷는 노인 등의 설정을 통해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는 전기적 특징을 보인다.
- ③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고뇌를 삽입하여, 평면적인 영웅 형상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입체적 인물을 창조하였다.
- ④ '부정한 자'를 가려내기 위해 옷을 던지는 행위나 점복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당시 사회의 민속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⑤ 주인공이 적대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즉각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전개 방식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상사와 왕수재의 대화에서 배가 멈춘 원인을 해신의 장난으로 규정하고, 왕수재가 섬에 남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신이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②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고정되어 있으며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서술자가 교체되지는 않는다.

③ 서술자가 작품 표면에 직접 나타나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 회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매력적인 오답]** 용궁이나 신이한 섬과 같은 비현실적 배경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사실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전기성을 부각하고 있다.

### 2. [정답] ④

왕수재는 구미호의 위엄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 변신한 구미호의 아름다운 외양에 현혹되어 활쏘기를 주저했다.

① 왕수재는 자신이 바다에 빠지더라도 사신 일행이 임금의 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며 유교적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② 왕수재는 자신의 옷이 물에 뜨자 이를 신이 초래한 일이며 제 운명이라 말하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③ 왕수재는 자신을 속세의 천한 사람이라 칭하고 재주가 없다고 말하며 노인의 칭을 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매력적인 오답]** 왕수재는 여우가 둔갑한 부인을 보고 사람이 사람을 싸 죽여야 되겠느냐고 생각하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 3. [정답] ①

왕수재는 바람과 파도가 전혀 없는 기이한 변고로 인해 배가 멈춘 것이므로, 풍랑으로 인해 항해가 중

단된 거타지와 대비된다.

② 거타지는 가라앉는 나뭇조각의 주인이 남는 방식이지만, 왕수재는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아 남게 되었다.

③ 거타지는 즉시 적대자를 처치했으며, 왕수재는 부인으로 변신한 구미호의 아름다운 외양에 현혹되어 내적 갈등을 겪으며 활쏘기를 주저한다.

④ 거타지는 조력자의 요청에 응하여 적을 처치했으며, 왕수재는 노인의 부탁을 수락하지만 적의 모습에 현혹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번민하였다.

⑤ 왕수재의 조력자는 서해 용왕의 아들로, 바다의 신과 대립 관계가 아니다.

### 4. [정답] ④

음악 소리는 요사스런 구미호가 내는 것으로서 왕수재가 그 정체를 묻자 노인은 요물인 여우의 짓이라며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바람과 파도가 아예 없는 기이한 상황은 해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② 옷을 던져 부정한 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닌 신의 뜻을 확인하려는 비현실적인 변별 방법이다.

③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용왕의 아들과 구미호의 등장은 이 작품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전기 소설임을 잘 보여준다.

⑤ 노인은 구미호가 화살 백 발도 막아낼 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경고하며 정면 대결보다는 틈을 타서 명치를 싸야 한다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 5. [정답] ⑤

왕수재의 갈등과 주저는 건국 주체의 결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물에게 입체성을 부여하여 서사적 긴장감과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이다.

① 왕수재의 뛰어난 활 솜씨는 고전 소설에서 영웅적 인물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비범한 능력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이다.

② 용왕의 가족을 돕고 그 후손과 혼인한다는 설정은 왕건 가계가 용의 후손이라는 신화적 권위를 획득하게 한다.

③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왕

수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매혹적인 적대자로 그려진다.

④ 완벽한 영웅상에서 벗어나 윤리적 고민 때문에 고뇌하는 왕수재의 모습은 왕수재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입체적 인물임을 보여주어 독자가 인물에게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6. 정답 ①

왕수재는 사신 일행이 임금의 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며 희생을 자처하고, <보기>의 화자는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 거칠 것 없는 충의와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왕수재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적 대업을 걱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③ 왕수재는 조력자인 노인의 요청에 응해 적극적으로 활을 쏘려 노력하며, <보기>의 화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 주체로 나타난다.

④ 왕수재는 적대자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갈등하는 것이지 실력이 부족하여 패배를 직감하는 것이 아니다.

⑤ 윗글에서 왕수재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의 화자는 차가운 자연 배경 속에서 기개를 떨치는 모습을 보인다.

7. 정답 ⑤

노인은 왕수재가 신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 왕수재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극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상사는 뜻밖의 변고로 인해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왕수재는 해신이 길을 가로막는 원인을 내부의 부정함에서 찾고 있으며, 옷을 던져 부정한 자를 가려내자는 주술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③ 왕수재는 자신의 옷이 물에 뜬 결과가 신의 뜻이라며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사신 일행이 임금의 명을 완수하기를 기원하며 스스로 희생하려 한다.

④ 노인은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 왕수재를 궁벽한 땅으로 불러들인 상황에 대해 정중한 어조로 미안함을 표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8. 정답 ②

‘배’는 일행 전체가 해신의 장난으로 항해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는 장소이며, ‘섬’은 왕수재가 남겨진 후 용왕의 아들을 만나 요물 퇴치라는 과업을 맡는 장소이다.

① ‘섬’은 용왕의 아들을 도와 구미호를 퇴치하는 영웅적 활약이 펼쳐지는 공간일 뿐, 자아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배’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옷을 던져 점을 치는 등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이성적 판단만이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섬’에서 왕수재가 구미호의 외양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장치이다.

⑤ 상사는 ‘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일행에게 묻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섬’에서 왕수재는 노인을 선생이라 부르며 자신을 낮추고 있다.

9. 정답 ⑤

<보기>에서 작제건이 노인의 간청을 거절하거나 노인의 정체를 의심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윗글의 왕수재 또한 노인의 정체보다는 적대자의 외양 때문에 갈등한다.

① 윗글의 왕수재는 남경으로, <보기>의 작제건은 당나라로 향하던 중에 기이한 일을 겪으며 섬에 남겨지는 공통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② 윗글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고요함을 통해, <보기>는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를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에 의한 항해 중단을 묘사하고 있다.

③ 두 작품 모두 공동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수용되어 주인공이 홀로 섬에 남게 되는 전개를 취하고 있다.

④ 윗글은 구미호라는 민간 신앙적 요물을 적대자로 설정하였고, <보기>는 늙은 종을 용왕 일가를 괴롭히는 침입자로 설정하고 있다.

10. 정답 ①

인간 세계의 것과 다른 청아한 음악 소리가 가까워

지는 묘사는 곧 나타날 구미호의 정체가 범상치 않음을 알리며 서사적 긴장감과 신비로움을 조성한다.

② **[매력적인 오답]** 아름다운 외양 묘사는 구미호의 선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수재의 갈등을 유발하는 장치이다.

③ 뻘뻘한 기치와 창검은 구미호가 거느린 세력의 위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왕수재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④ 바다를 평지처럼 걷는 묘사는 노인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전기적 요소일 뿐, 극한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⑤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당기는 동작은 과업을 수행하려는 영웅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후 손을 푸는 행위와 연결되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인물의 파괴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11. **[정답]** ①

왕수재는 부인의 외양에 현혹되어 여우라는 실체를 오판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낙엽 소리에 임이 왔다고 착각하므로 두 인물 모두 감각적 자극에 의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② 왕수재는 부인의 아름다운 외양 때문에 여우를 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정체를 완벽히 간파하여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의 화자 역시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화자는 '하는 일이 다 어리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뿐, 욕망을 위해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왕수재는 요물 퇴치라는 과업 수행 중에 갈등하는 것이며,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과 재회하려는 의지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⑤ 왕수재는 옷깃을 던지는 시험을 통해 신의 뜻을 확인하고 이를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초월적 존재의 계시를 거부하며 길을 개척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보기>의 '지는 잎 부난 바람' 역시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정답]** ⑤

왕수재는 적대자의 유혹에 주저하며 활을 쏘지 못하는 갈등의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유혹을 물리치고 즉각적으로 과업을 완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고려 태조 왕건의 부친인 왕수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용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을 부각하는 것은 왕조의 건립을 신화적으로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②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이한 존재들과 기적 같은 사건들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전기 소설의 특징이다.

③ 왕수재가 적대자의 아름다움에 흔들려 도덕적 고민을 하는 대목은 완벽한 영웅상에 인간적 유약함을 더해 인물의 입체성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④ 옷깃을 던져 해신의 계시를 확인하려는 장면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보다 초월적 존재의 의지를 중시했던 당대인들의 주술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